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5호 [루게 제23287호] 주체99 (2010)년 12월 1일 (수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통성기계연합기업소 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통성기계연합기업소 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박범기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박도춘동지, 태종수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분공장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또다시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니게 된 통성기계연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당장전 65년과 력사적인 당대표 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한 승리자의 기세드높이 연말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공장의 로동계급은 련일 눈부신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분공장책임 일꾼들의 안내를 받시며 혁명사적 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혁명사적교양실에는 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신 때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장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이 공장이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최신식기계설비도 척척 만들어내는 기계제작기지로 전변되었다고 하시면서 주체적인 기계제작공업을 창설하신 수령님의 혁명적은 조국청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공장전경도안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여러 생산장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건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줄지어 늘어있는 새로 만든 여러가지 기계들의 구조와 성능, 작용원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나라의 부강번영에 크게 기여할 현대적인 기계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공장의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기존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막대한 자금을 절약하면서도 첨단수준에 도달한 성능이 좋은 설비들로 갱신한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장성의 예비를 과학기술에서 찾고 여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착실히 진척시키고있는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기계제작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공장의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다그치며 선진기술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라!》는 당의 호소를 심장깊이 새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로동계급이 최첨단과학기술의 불길높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고있는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이 눈부신 비약은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와도 끄떡

없이 사회주의원칙,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며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을 앞장에서 때밀어나가는 통성로동계급의 투쟁정신, 영웅적 조선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힘의 발현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통성기계연합기업소와 같은 강위력한 수많은 기계공장들의 힘있는 뒤받침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그토록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를 빛나게 실현하고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튼튼히 축성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주체적인 기계제작공업을 가지고있어서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통성기계연합기업소는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분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더 많은 기계설비들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로동계급은 전후의 그 어려운 나날에 대형공작기계를 만들던 통성로동계급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이악하게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기술개건사업을 힘있게 벌려 기계제작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질 좋은 현대적인 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새것으로 끊임없이 지향하도록 생산조직

지휘를 따라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부산물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만든 여러가지 견제품과 일용품수품을 보시고 제품의 질이 대단히 높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아글라글 노력하고있는 그들의 인민적복무정신을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날 공장에서 새로 건설한 로동자식당을 비롯한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로동자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공장에서는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명심하고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공장에서는 로동자식당과 풍가공장, 국수가공장 등 편의봉사시설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고 부업지에서 수확한 콩을 비롯한 농산물을 가지고 로동자들의 식생활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의 주인인 로동자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후방사업을 면밀히 짜고치고 이악하게 노력함으로써 몇해 사이에 놀라운 전변을 이룩하였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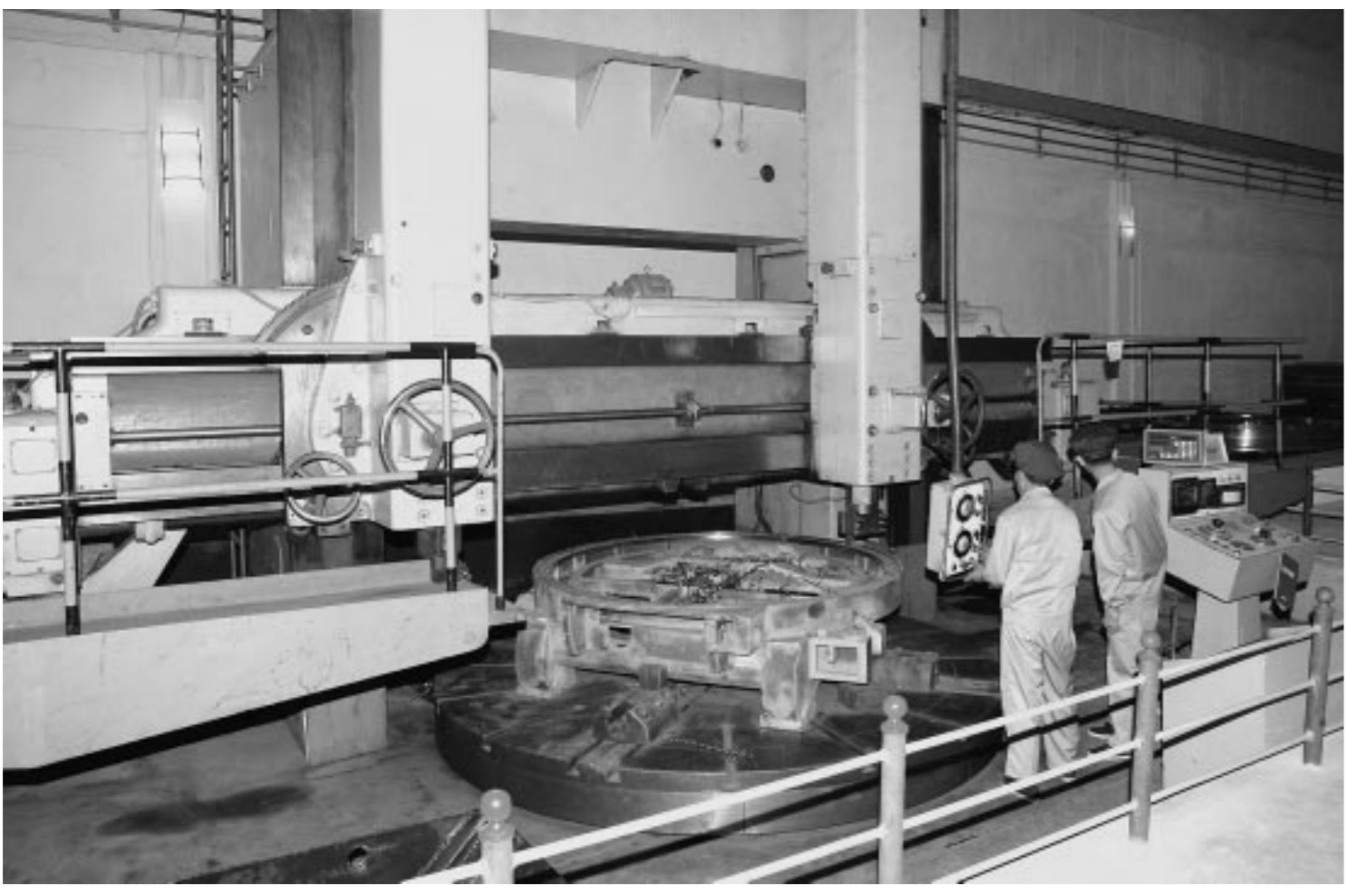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담하게 일떠선 건물들과 갖가지 수종의 나무들이 울창한 수림을 이루며 마치 수목원을 련상시키는 공장의 광경을 정경계 바라보시면서 공장의 로동계급이 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구내의 수림화, 원림화를 훌륭히 실현하여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최근년간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공장일꾼들이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생산과 기술발전, 후방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실리있게 진행한 결과라고 하시면서 일꾼들이 경제작전과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짜고드는것은 대고조진군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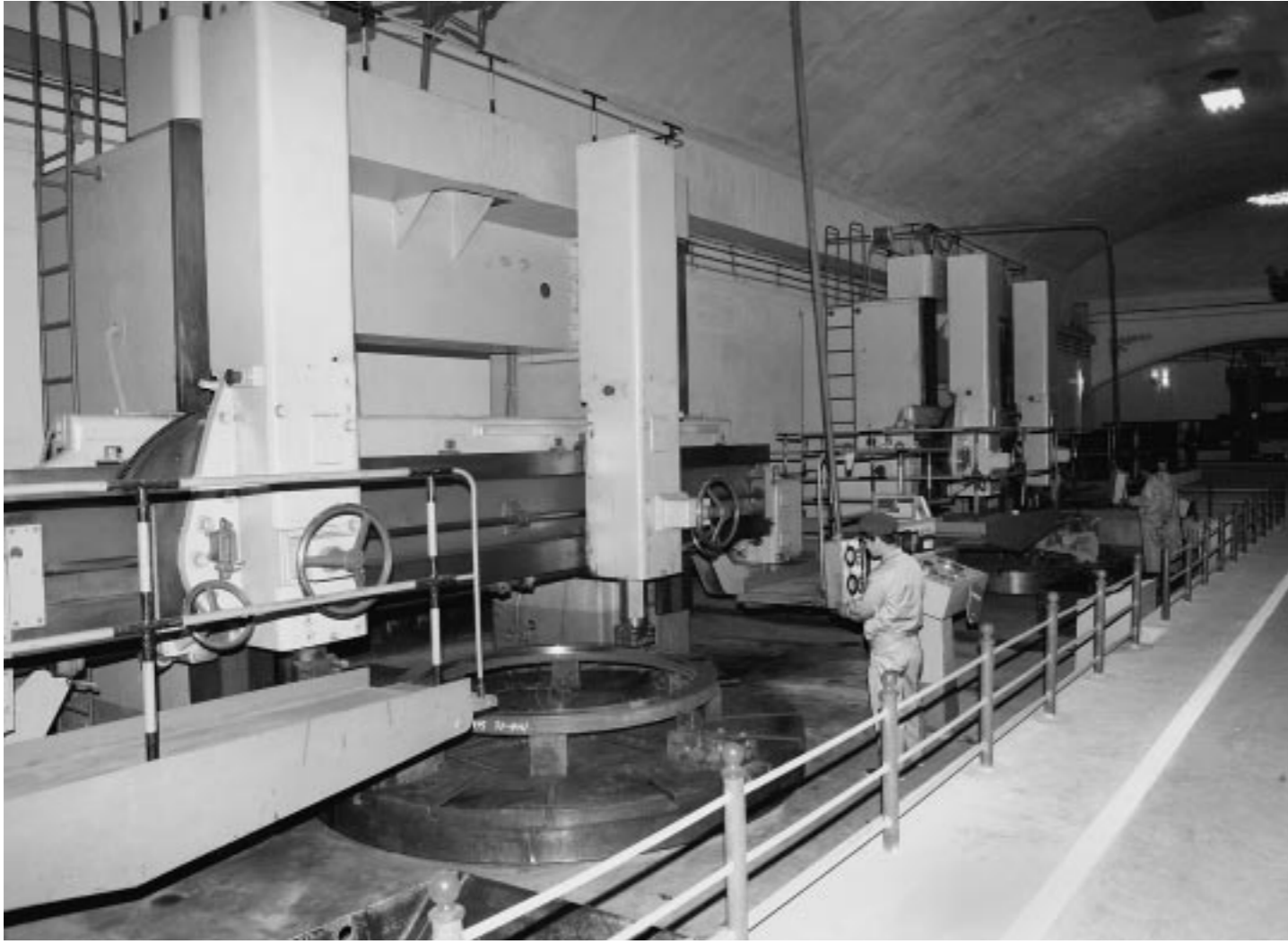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을 일으키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통성기계연합기업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통성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련일 불철주야의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시정지도모반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붓대중시사상을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시고

《 3 . 1 월 간 》 창 간 기 념 일 을 맞 으 며

천만군민을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한 거창한 강성대국건설대전에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사상적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우리의 혁명적출판보도들의 위력은 뿌리깊은 역사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오늘은 우리 나라에서 첫 반일민족 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의 기관지 《3. 1월간》이 창간된지 74년이 되는 날이다.

항일의 불바다, 눈보라만리속에서 《3. 1월간》이 창간되던 날을 돌이켜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류가 낳은 불세출의 위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선전지령과 영도의 위대성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붓대중시사상은 항일혁명투쟁에 그 시원을 두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출판, 언론활동을 특별히 중시하시였으며 민족독후방 없는 간고한 무장투쟁속에서 수많은 혁명적출판물들을 발간하시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조국해방전쟁에도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수많은 대중속에 동일한 사상과 투쟁요를 일시에 신속히 선전하여 하나로 결속시키고 그들을 조직사상적으로 단련시키는데서 혁명적출판물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는 선전선동수단은 없을것이라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견해였다. 여기에 이어께서는 《새날》과 《불세출》을 비롯한 혁명적출판물들을 발간하시던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백두산밀영을 중심적인 혁명거점으로 하여 전반적조선혁명의 일대 양상을 위한 투쟁을 조직명도하시는 속에서도 《3. 1월간》 창간사업을 정력적으로 밀고나하시였다.

1930년대 후반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언론활동을 더욱더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혁명조직들에 대한 선전활동은 부득불 비밀리에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광복회를 창간하시고 그 판도를 조선사람들이 살고있는 국내의 넓은 지역으로 확대할데 대한 이상을 펼치시였다. 당시의 형편에서 수많은 공작원들을 각지에 파견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공작원들의 수가 제한되어있었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작원들의 부족에서 오는 공간을 메꾸기 위한 방도를 혁명적출판물보급에서 찾으시였다.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는 신문이나 잡지를 잘 만들어서 도처에 뿌리면 그 한부분자가 곧 한명혁명의 공작원을

대신할수 있다고 확신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백두산에 밀영이 창설되고 출판소가 꾸려져진 후 《3. 1월간》을 지체없이 창간하도록 하시였다.

《3. 1월간》! 조국광복회의 사명에 알맞는 이 최초의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뜻이 빛발치고있다.

《3. 1》은 3. 1인민봉기를 의미하였다. 3. 1인민봉기는 인제침략자들에게 거룩적으로 대항하신 조선사람들의 장엄한 독립운동이었다. 그러므로 《3. 1월간》이라는 제목은 민족의 의지를 담은것으로서 거기에선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고수하고 백두산을 타고앉아 전조선적인 판도에서 투쟁투쟁을 확대발전시킨다는 전략적의도와 함께 진민항쟁을 마련해간다는 의의도 포함되어있다.

《3. 1월간》의 첫 집필자도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여기에서는 적들의 치밀한 교묘에 계속되는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서서 원고를 집필하시였다. 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모든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며 《3. 1월간》을 창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창간호발간준비에서 마지막까지 어려운 문제로 제기된것은 출판기자재의 구입이었다. 출판소에는 남은 등사기 한대밖에 없었다. 등사인크도 그러도 등사원지도 종기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출판소의 일꾼들은 부족한 그 모든것을 자제로 해결하였다. 등사인크가 떨어지면 양쪽도 고갈을 헤치우고 붓나뭇집을 태우고서 붙은 그늘음을 긁어내었다. 그 그늘음을 기름에 재웠다가 등사인크와 섞어 사용하였다. 로마가 못쓰게 되었을 때에는 갖출에 송진을 섞어서 끓여가시고 형을 부어 만들어냈고 강물이 못쓰게 되면 못바늘을 가지고 만들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대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면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3. 1월간》을 위해 바친 그들의 피어린 노력을 자력경애, 간고분투의 표본으로 내세우만 한것이 있다고 쓰시였다.

더하여 주제 25 (1936)년 12월 1일 《3. 1월간》 창간호가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3. 1월간》의 인기는 예상을 초월하였다. 독자들은 잡지를 즐겨읽었으며 잡지가 발간되면서부터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확대강화하는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다. 인민혁명군대원들과 그 지지자, 동정자대원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한두방의 《붓대》가 이 영향에 큰 힘을 내는가 하고 그 《붓대》의 입자들까지도 놀랄 지경이었다고 하니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겠는가를 짐작할수 있다.

《3. 1월간》은 조국광복회의 기관지로 발간되었으나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기관지로서의 사명도 띠고있었으며 온 나라, 온 민족을 상대로 하는 대중정치잡지로서의 사명도 동시에 담당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이 잡지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나 혁명가들만이 아니라 민족부르조이까지도 종교인들, 독립군병사까지도 다 읽고 사랑하는 범민족적인 잡지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서광》, 《중소리》, 《철혈》과 같은 출판물들을 내오시고 열렬의 총성과 함께 글로성으로 2천만 우리 동포를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아래 끈끈히 묶어세우시고 항일대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이 날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모든 혁명적출판물의 성격과 사명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편집방향과 기사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주시였다. 중요한 기사는 자신께서 직접 쓰기도 하고 출판물의 편집과 내용을 지도하시였을뿐 아니라 종이와 등사기, 등사인크를 마련하는것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고 그의 심혈과 로고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해안의 예지와 세심한 지도는 백두밀림속에 꾸려진 전반적조선혁명의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영도를 구현하는데서 선도의 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혁명적출판물들이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년 쓰러지던 백년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두의 영웅사사를 창조하며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마침내 조국해방의 새문을 열어놓을 수 있었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에 의하여 그 시원이 열린 우리 당의 붓대중시사상은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고있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지난 2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속에 성대히 열린 전국지사, 언론인대회!

그것은 거창한 창조와 눈부신 비약의 전진기가 펼쳐지는 선군시대에서 우리 기자, 언론인들이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비강히 높일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의 불꽃이이며 불세출의 위인의 붓대중시사상이어 머지않아 이 땅에서 장성부흥아리랑이 울려오리라는 믿음을 내는가 하고 그 《붓대》의 입자들까지도 놀랄 지경이었다고 하니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겠는가를 짐작할수 있다.

우리 장군님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3. 1월간》은 조국광복회의 기관지로 발간되었으나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기관지로서의 사명도 띠고있었으며 온 나라, 온 민족을 상대로 하는 대중정치잡지로서의 사명도 동시에 담당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이 잡지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나 혁명가들만이 아니라 민족부르조이까지도 종교인들, 독립군병사까지도 다 읽고 사랑하는 범민족적인 잡지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서광》, 《중소리》, 《철혈》과 같은 출판물들을 내오시고 열렬의 총성과 함께 글로성으로 2천만 우리 동포를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아래 끈끈히 묶어세우시고 항일대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이 날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모든 혁명적출판물의 성격과 사명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편집방향과 기사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주시였다. 중요한 기사는 자신께서 직접 쓰기도 하고 출판물의 편집과 내용을 지도하시였을뿐 아니라 종이와 등사기, 등사인크를 마련하는것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고 그의 심혈과 로고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해안의 예지와 세심한 지도는 백두밀림속에 꾸려진 전반적조선혁명의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영도를 구현하는데서 선도의 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혁명적출판물들이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년 쓰러지던 백년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두의 영웅사사를 창조하며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마침내 조국해방의 새문을 열어놓을 수 있었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에 의하여 그 시원이 열린 우리 당의 붓대중시사상은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고있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지난 2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속에 성대히 열린 전국지사, 언론인대회!

그것은 거창한 창조와 눈부신 비약의 전진기가 펼쳐지는 선군시대에서 우리 기자, 언론인들이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비강히 높일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의 불꽃이이며 불세출의 위인의 붓대중시사상이어 머지않아 이 땅에서 장성부흥아리랑이 울려오리라는 믿음을 내는가 하고 그 《붓대》의 입자들까지도 놀랄 지경이었다고 하니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겠는가를 짐작할수 있다.

우리 장군님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기자, 언론인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전군나팔수이다》는 또 얼마나 온 나라의 기자, 언론인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던가.

나는 총대와 함께 붓대를 중시한다! 혁명은 사상의 힘으로 전진하며 사상의 위력은 붓대에 의하여 담보된다!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한편의 기사나 문학작품은 수백수천만의 총포탄을 대신할수 있다!

이렇듯 숭고한 붓대중시사상을 지니시고 사상의 위력으로 백승의 역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을 우리 어찌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기자, 언론인들을 사상과 뜻을 같이 하는 혁명동지로 굳게 묶고 그 어떤 준엄한 시련과 난관도 함께 헤쳐나가 는 우리 당의 믿음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것입니다. ...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 위외불수룩 회색의 선군경장의 승고한 사랑과 믿음의 세계가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기자, 언론인들을 만나실 때마다 동무들이 나를 그리워하듯이 자신께서도 동무들을 그리워한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의 붓대에 대한 사랑이었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당의 의도대로 글을 잘 쓰는 동무들은 영웅이라고 하시며 늘 내세워주시고 좋은 글을 쓰지면 현지에 가보아야 한다시며 몸소 비행기도 띄워주시는분, 회귀한 과일이니 색다른 식료품이 생겨도, 닭공장을 비롯한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기자, 언론인들부터 먼저 생각하시는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언제인가는 기자, 언론인들과 만나신 자리에서 자신께서 자제를 지양하라는 특성에 맞게 자제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악하게 투쟁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였으며 근 50년동안

위대한 선군명장의 이런 붓대중시의 지지대우에 굳건히 서있기에 우리의 붓대와 마이크가 드세한 포화력으로 원수들의 아성에 사상공세의 명중탄을 퍼부으며 강성대국의 령마루로 폭풍쳐가도록 천만군민의 심장에 비약과 혁신의 불길을 활활 지펴올리고있는것이다. 총대와 함께 붓대를 제1의 사랑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업무를 빛나는 승리에 인도 하시는 위대한 백두명장을 모시고 우리 당의 붓대중시사상은 선군혁명의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그 위력을 온 세상에 자랑하듯이 떨칠것이다.

본사기자 김성남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시며

얼마전 창성군의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을 지퍼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로서 그렇게 한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며 지방공업을 절대로 홀시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시였다.

한 일꾼으로부터 조합에서 유유자재를 모아 비닐신을 생산하고 수도관과 발판개용비닐판, 박막짜지 생산하여 대상기판에 보내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좋은 일이라고 치하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

비록 요란하지는 못해도 자기 힘을 믿고 만든 창조물이라 면 더없이 귀중하여 그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깊어갔다.

그때 관작업반을 비롯한 조합에 설치된 기계들은 이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자제의 힘으로 만든 실비들이였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못내 만족하시면서 이 조합은 일 잘하는 단위라고, 여기에 서처럼 자체로 만든 실비들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자기들이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해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을 우리로서 이곳 일꾼들은 뉘어오르는 감격이 금치 못하면서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앞으로 자력경쟁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할것을 다짐하는 결의를 마음속으로 다지고 또 다지였다.

그러한 일꾼들을 미쁘게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량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기는 지방공업을 정상화하였으며 근 50년동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기자, 언론인들을 사상과 뜻을 같이 하는 혁명동지로 굳게 묶고 그 어떤 준엄한 시련과 난관도 함께 헤쳐나가는 우리 당의 믿음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것입니다. ...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 위외불수룩 회색의 선군경장의 승고한 사랑과 믿음의 세계가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기자, 언론인들을 만나실 때마다 동무들이 나를 그리워하듯이 자신께서도 동무들을 그리워한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의 붓대에 대한 사랑이었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당의 의도대로 글을 잘 쓰는 동무들은 영웅이라고 하시며 늘 내세워주시고 좋은 글을 쓰지면 현지에 가보아야 한다시며 몸소 비행기도 띄워주시는분, 회귀한 과일이니 색다른 식료품이 생겨도, 닭공장을 비롯한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기자, 언론인들부터 먼저 생각하시는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언제인가는 기자, 언론인들과 만나신 자리에서 자신께서 자제를 지양하라는 특성에 맞게 자제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악하게 투쟁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였으며 근 50년동안

위대한 선군명장의 이런 붓대중시의 지지대우에 굳건히 서있기에 우리의 붓대와 마이크가 드세한 포화력으로 원수들의 아성에 사상공세의 명중탄을 퍼부으며 강성대국의 령마루로 폭풍쳐가도록 천만군민의 심장에 비약과 혁신의 불길을 활활 지펴올리고있는것이다.

총대와 함께 붓대를 제1의 사랑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업무를 빛나는 승리에 인도 하시는 위대한 백두명장을 모시고 우리 당의 붓대중시사상은 선군혁명의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그 위력을 온 세상에 자랑하듯이 떨칠것이다.

본사기자 김성남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날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수고부터 헤아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해 공업총생산액을 알아보시고나서 그렇게 한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며 지방공업을 절대로 홀시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시였다.

한 일꾼으로부터 조합에서 유유자재를 모아 비닐신을 생산하고 수도관과 발판개용비닐판, 박막짜지 생산하여 대상기판에 보내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좋은 일이라고 치하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

비록 요란하지는 못해도 자기 힘을 믿고 만든 창조물이라 면 더없이 귀중하여 그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깊어갔다.

그때 관작업반을 비롯한 조합에 설치된 기계들은 이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자제의 힘으로 만든 실비들이였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못내 만족하시면서 이 조합은 일 잘하는 단위라고, 여기에 서처럼 자체로 만든 실비들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자기들이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해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을 우리로서 이곳 일꾼들은 뉘어오르는 감격이 금치 못하면서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앞으로 자력경쟁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할것을 다짐하는 결의를 마음속으로 다지고 또 다지였다.

그러한 일꾼들을 미쁘게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량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기는 지방공업을 정상화하였으며 근 50년동안

위대한 선군명장의 이런 붓대중시의 지지대우에 굳건히 서있기에 우리의 붓대와 마이크가 드세한 포화력으로 원수들의 아성에 사상공세의 명중탄을 퍼부으며 강성대국의 령마루로 폭풍쳐가도록 천만군민의 심장에 비약과 혁신의 불길을 활활 지펴올리고있는것이다.

총대와 함께 붓대를 제1의 사랑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업무를 빛나는 승리에 인도 하시는 위대한 백두명장을 모시고 우리 당의 붓대중시사상은 선군혁명의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그 위력을 온 세상에 자랑하듯이 떨칠것이다.

본사기자 김성남

본사기자 김성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프랑쑤아 보지제 각하

나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선로 52쪽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친선적인 귀국에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99 (2010)년 11월 29일 평양

부르키나파소 대통령 블레즈 컴파오레 각하

나는 최근 귀국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신이 인민들의 높은 지지속에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의 중책을 다시 지니게 되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사회경제적발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있을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99 (2010)년 11월 30일 평양



소백수풀을 따라 백두산밀영교향집으로 끝없이 흐르는 답사행군대오 -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에서 -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평안북도현지지도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평안북도현지지도 기념보고회가 11월 28일 신의주에서 진행되었다.

도내 당, 정권, 경제기관 일꾼들, 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제 98 (2009)년 10월과 11월 평북평을 찾으시고 도가 나갈 길을 활히 밝혀주시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수공업발전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정형화 전정형과 전형생산설비를 토해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가르쳐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울산공구공장 로동계급에게 공구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광택배아랑공장 등 비롯한 여러 공장들에서 생산적양상을 일으키고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의주인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 고 신의주초중생산협동조합에서 만든 제품을 보여주시며 주신 말씀은 경영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새로 꾸러진 묘향산유원지를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천군 은용협동농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나라의 농업발전에서 뛰어워오나가야 할 지침을 안겨주시였으며 평안북도당공장과 신의주당공장에서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기 위한 방도를 명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도내 기계공공들이 최첨단들과전에서 장군의 앞장에 서고 운산공구공장과 광택배아랑공장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영부분에서 현대화와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지고 전례, 금속, 석탄공업부문에서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남으로써 도가 자기 역할을 완만히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같은 대대도건설의 완공과 같은 로동당시대의 기적의 창조되고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이 도입되어 농업생산 전진에서 전환이 일어나고있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시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올해의 주공전선인 경영업과 농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신의주인발공장을 비롯한 경영업부문 공장들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올해전투를 힘있게 벌려 질풍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올해농사를 잘 결속하고 다음해농사차비에 힘을 넣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앞장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락원을 비롯한 기계공공장에서 생산정도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치고 성능이 좋은 기계제품들과 대상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운산공구공장에서 공구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애국의 한마음으로 국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도를 사회주의선경으로 건설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신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인민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무용예술론》 발표 20돐기념 주제전문사상연구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무용예술론》 발표 20돐기념 주제전문사상연구모임이 11월 30일 평양무용대학 무용극장에서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일꾼들, 무용예술부분 창작자, 예술인, 교원, 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고전적로작 《무용예술론》이 밝힌 주제전문사상과 리론의 진리성과 정당성, 주제무용예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평양무용대학 학장 방창남, 실장 리만순, 피바다극단 실장 김복룡, 국립민족예술단 파장 진영숙, 평양무용대학 파장 리병길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79 (1990)년 11월 30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무용예술론》을 발표하신것은 주제예술 발전에 쌓으신 커다란 공적으로 된다고 하면서 로작은 무용예술에 관한 사상리론을 진리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주제무용예술의 총서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로작이 무용의 본질과 발전발전, 창작과 형성, 표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식 무용예술을 창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에 전면적이며 완벽한 해답을 주고있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한 혁명적인 무용예술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생활의 참된 보람을 안겨주고 그들을 새 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킨다.》

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것을 무용예술의 기본사명으로 밝히고 무용이 사람들의 사상정당과 생활을 예술적활동으로 형성한다는 새로운 과학적해명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로작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조직명도하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무용예술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와 방도를 뚜렷이 명시해주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로작이 무용에서 민족적형식을 살리고 인민들의 다양한 생활을 형성할데 대한 사상리론을 들을 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무용예술, 주제적무용예술의 창조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준데 대하여 말하였다.

실질주의적창작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 특색있는

민족적충격을 창조하며 우리 무용예술의 혁명전진을 고무할수 있게 한다는데 로작의 당성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무용대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안무구성을 바로세울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무용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이 로작에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무용작품창작에서 종자를 당적적요구에 맞으면서도 예술적활동으로 형성할수 있는것으로, 다양한 생활속에서 새롭고 특색있는것으로 플라자들에 대한 사상은 무용예술을 선군시대의 혁명적인 예술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로작이 무용배우의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기초하여 배우의 춤형상창작에서 나서는 요구와

필요한 여러가지 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지방공업발전을 위해 헌신의 로고를 마쳐가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정력적인 모습은 일꾼들의 가슴속에 추억의 파도를 몰아왔다.

일찍이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한 지방당 및 경제일군 창성전선회의 나남에 몸소 《지방경제를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이라는 력사적인 로작을 발표하시어 수령님의 지방공업창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의 우월성을 사상리론적으로 논증하신 우리 장군님의 빛나는 예지.

지방공업이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여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혁명하게 이끌어 주신 따뜻한 그 손길.

진정 인민을 위한 백두산위인들의 열렬한 사랑과 애의는 로고가 있었기에 나라의 지방공업을 넘실넘실시켜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할수 있는것이 아니었던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조합이 기업관리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거듭 치하하시고 앞으로 일을 더 잘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고무해주시고서야 이 글을 마치시였다.

절세의 위인의 고귀한 믿음과 사랑을 생명에도 여기고있는 최첨단인용물생산협동조합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그이의 현시말씀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3대혁명투쟁을 걸어나고있으며 3대혁명투쟁을 기를 정취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만 하면 반드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난다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진리로 간직한 우리 인민은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것이다.

본사기자 강정민

본사기자 강정민

본사기자 강정민

본사기자 강정민

본사기자 강정민

본사기자 강정민

본사기자 강정민

본사기자 강정민

본사기자 강정민

본사기자 강정민

본사기자 강정민

푸른 숲이 자랑하는 참된 애국자

회령시 공심협동농장 조립분조 분조장 정영석 등 무

공심, 정말 이름그대로였다. 활동처럼 둘러싼 산들의 중심에 자리잡고있어 공심으로 불려온다는 농장의 조립분조를 찾아 산등성이 오르는 오솔길은 끝이 없을상실였다.

《힐이 들지요. 이전에는 여기 사람들이 뭘했는지 알니까. 깊은 산골에서 하도 공금하고 심심해서 공심이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 나라가 다 아는 공심이 되었지요. 솔한 사람들이 경험을 배우러 찾아와 이 한적한 산골이 오름은 막 흥성입니다. 이렇게 가져다주는게... 오늘이 이 자랑을 우리 조립분조장정영석을 땀어놓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마머 코등에 송골송골 내들은 땀을 닦으며 잠시 숨을 돌리는 우리에게 함께 가던 한 일꾼이 웃음을 지으며 하는 말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조립분조 분조장 정영석등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에게는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합니다.》

15년전 어느날 공심협동농장의 한 방에는 밤길도록 두 사람이 앉아있었다.

《... 산이 어떤 산입니까. 협동농장의 실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우리 수령님께서 자체로 나무도 심고 거기에서 영양증과 건설목재 그리고 펠 나무도 찍어서 더 잘 살라고 하신 조국의 귀중한 재부이고

농장의 아까운 재산이 아닙니까. 제 배가 부서지더라도 해볼테니 저를 조립분조에 보내 주십시오.》

또다시 절절하게 울리는 파수작업반 (당시) 초급일꾼인 정영석등무의 목소리였다.

며칠후 조립분조 분조장으로 임명되어 배낭을 메고 산으로 오르는 정영석등무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울리고 있었다.

(가다려다오, 내 고향의 산들이여. 내 기어오를 푸른 숲 오를것을 보물산으로 되게 하리라.)

리밭에 강변이 한포기라도 더 살고싶은 그는 자기 집터밭을 다 갈아엎고 거기에 나무모를 심었다.

낮에는 한뼉, 한뼉의 토지를 돌아보며 머리로 전당포를 그려보았고 저녁이면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서 쉬는 당원들을 찾아가 산림조성과 관련한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곤 하였다.

《아버이, 솔한 당원들이 살면서 후대들에게 벌어먹은 산을 넘겨줄수가 없지 않습니까.》

《막걸리를 할 뻔 나무가 제일 그리웠어. 나도 힘자라는것 자체를 땀때네.》

여러 로망원들이 그와 함께 나무를 심었다.

리한송, 박치순, 김정호, 리청우, 왕승모, 김병권, 강현복...

날을 따라 분조원들이 늘어났다. 동생인 정영석등무도 영석등무의 뒤를 따라나섰다. 정영석등무는 그들과 함께 현재 있는 산림을 보호하는것

파 동시에 나무심을 발들에서 들을 취하며 시작하였다.

어떤 날에는 점심시간마저 아까와 허리춤에 차고있던 삶은 통장뱅이를 선자리에서 씹으며 온종일 들을 취한 땅이 한평도 떠나나나 한적도 있었다.

온종일 함마와 곡뎡이로 땅을 두지머 들들을 취해나고나면 손바닥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밤이면 그 손에 연필을 쥐고 우뚝불라오르는 천막결에서 농장림조성전망도를 그려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오래간만에 집에 내려왔던 정영석등무는 눈물이 광택진 안해를 보게 되었다.

《늘 산에서만 사는 당신의 그 마음을 전 리해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 당신의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나요.》

정영석등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더 할수 있나라. 그렇지 않아도 일년열두달 산에서 살다니 가정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혼자서 도맡아 하고 수고많은 안해가 자기때문에 마음고생까지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미안하오. ...》

그는 뒤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는 그걸로 다시 산에 올라 우뚝불을 피워놓고 곡뎡이를 휘둘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팔을 붙잡았다. 안해였다. 안해의 손을 꼭 잡으며 그는 말했다.

《꼭 누가 알아주어야 멋있겠소. 나무를 심어야 농사도 더 잘 지을수 있고 집도 많이 짓고 더 잘 살수 있소. 후날 무성한 산림이 모든걸 전해주겠지요.》

《팡일이아버지, 저도 나무를 심겠어요.》

그날부터 정영석등무의 안해도 조립분조원이 되었다.

자기 일의 정당성에 대하여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도 열정도 힘도 끝없이 샘솟는 법이다.

정영석등무는 분조원들과 함께 이악하게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며 농장림을 한정보, 한정보 늘여나갔다.

정영석등무는 나무모를 얻기 위해 수백리 떨어진 연사군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땀을 흘리는 가야 하는 그를 위해 연사군의 산림감독원이 담은 강변이를 배낭에 넣어주려고 할 때였다.

《교감습니다. 그런데 이 강변이대신 나무모를 한데 더 줄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고향에 숲이 무성할 때 내 귀하고 곁을 울리리다.》

끝내 30그루의 나무모를 더 받아오고 그는 너무 좋아 어쩔줄 몰라하였다.

그처럼 소중한 나무모들이 마를새라 그는 허기진 배를 달래려고 배낭속에 넣어둔 한 병의 물마저 아낌없이 부어주었다.

담배대보다도 작은 나무모 하나에겐 분조원들이 정영석등무에게 흔쾌히 내어주었다. 언제나 그가 1년생 이깔나무모

를 2년생 모판으로 옮겨심을 때였다.

모판 주변에 울린 3개의 나무모를 주어진 정영석등무는 분조원들에게 엄하게 말했다.

《보시오, 얘기모가 지금 울고있지 않소. 자기를 버렸다구. 지금은 우리 손가락질이 아니라 나무모가 몇 년후에는 거목이 되어 우리에게 큰 복을 준다는것을 많은 나무모들을 생산하여 농장림조성에 리용하였으리 또 여러 단위에 보내주었다.》

그분이 아니라. 휴계실을 번듯하게 꾸리고 염소우리, 양이 못을 만들어놓고 그 덕을 보고있으며 수백그루의 파잎나무를 심고 50여명의 도리지발을 조성하여 분조원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이 내게 하였다.

정영석등무에 대한 자랑은 정녕 끝이 없을듯싶었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애국자라는 감정이 우리 가슴속에서 저절로 울려나왔다.

하지만 우리와 만난 그는 소박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 하는것이였다.

《나라가 나무를 심고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주변은 모든 산들이 푸른 숲을 펼쳐야 합니다.》

그가 가리키는 하나하나의 산들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이런 참된 애국자들이 더 많이 내 나라의 산과 들에 펼쳐질 푸른 숲이 가슴부풀게 안겨 주었다.

《가구가 아니라 농장림이 내

재산이요. 내 고향의 저 푸른 숲이 바로 내 삶의 전부인 말이요.》

그는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가며 분조원들과 힘을 합쳐 15년간 120정보의 이깔나무모와 80정보의 아카시아나무를 조성하여 농장이 실지 더덕을 보게 하였다.

또한 2정보의 양묘장을 꾸려 이깔나무모 61만그루, 아카시아나무모 194만그루를 기른 복을 준다하는것을 많은 나무모들을 생산하여 농장림조성에 리용하였으리 또 여러 단위에 보내주었다.

그분이 아니라. 휴계실을 번듯하게 꾸리고 염소우리, 양이 못을 만들어놓고 그 덕을 보고있으며 수백그루의 파잎나무를 심고 50여명의 도리지발을 조성하여 분조원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이 내게 하였다.

정영석등무에 대한 자랑은 정녕 끝이 없을듯싶었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애국자라는 감정이 우리 가슴속에서 저절로 울려나왔다.

하지만 우리와 만난 그는 소박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 하는것이였다.

《나라가 나무를 심고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주변은 모든 산들이 푸른 숲을 펼쳐야 합니다.》

그가 가리키는 하나하나의 산들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이런 참된 애국자들이 더 많이 내 나라의 산과 들에 펼쳐질 푸른 숲이 가슴부풀게 안겨 주었다.

《가구가 아니라 농장림이 내

신민주철길대 고무관생산소대원들

얼마전이었다. 많은 량의 고무관들을 실은 자동차가 그의 주철길대를 떠났다.

나무침목을 콩크리트침목으로 바꾸는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으로 달려가는 자동차를 바래워주는 사람들속에는 고무관생산소대원들도 있었다.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해 아낌없이 바친 자기들의 땀방울이 스며있는 제품들이여 그들의 가슴은 남다른 흥분으로 설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서는 말로 대답할것이 아니라 몸을 내대야 합니다.》

신의주철길대에 고무관생산소가 조직되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령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 그들이지만 자기 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일터를 번듯하게 꾸리려고 해마다 많은 량의 고무관생산을 생산하였다.

우리의 식으로 발전적인 것을 창조하자! 이것은 소대원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언제나가 일터를 지나던 한 소대원은 수동유압프레스앞에 이윽도록 서 있었다.

(자동화된 프레스를 만들자. 그래서 일도 험하게 하고 제품의 질도 높이자.)

이렇게 결심한 그는 실정에 맞는 자동유압프레스를 만들기 위해 떨쳐나섰다.

그는 자동유압프레스의 동작원리들을 하나하나 터득하였으며 밤을 새워가며 설계를 완성하였다.

다른 소대원들과 힘을 합쳐 프레스의 틀도 만들고 유압펌프, 분배변을 비롯한 부분품들도 차례로 해결하였다. 진취성이 강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높은 소대원들을 두고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소대원들은 면직의선물탈류기와 파다이아질단기를 비롯한 설비들도 그렇게 자력으로 만들어내었다.

면직의선물탈류기를 만들 때였다. 일부 사람들이 소대원들의 결심을 듣고 머리를 긁적거렸다.

제힘으로 만들어내기 힘들다는것이였다. 하지만 소대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국가과학원의 연구사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절된 기술전문기술을 하나하나 물어나갔다. 그러하여 짧은 기간에 면직의선물탈류기를 끝내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자기 힘에 대한 굳은 믿음을 안고 그들이 만들어낸 여러가지 설비들은 소대원들이 흥겨워 일하면서 고무관생산소의 질을 더욱 높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로 되고있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이 구호가 더 많은 고무관생산을 생산하기 위한 험한 투쟁을 벌이고있는 그들의 전투장에 나붙어있다.

본사기자 김 승 표

대담하게 결심하고 달려들어야

본사기자 김 승 표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악기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집체적지혜를 합쳐간다. - 평양악기공장에서 - 본사기자 리명일 적음

라오스국경철 35과과 카이손 품비한주석 생일 90돐 기념 집회 및 영화 감상회 진행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창건 35과과 카이손 품비한주석 생일 90돐 기념집회 및 영화 감상회가 11월 30일 대동강의교단장에서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우리 나라 기발파 라오스기발이 세워져있었다.

집회에는 짜런 와린타라씩주 2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직원들이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외선협회 위원장인 방만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제부민 일꾼들, 시내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방만길위원장이 연설했다.

그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창건 35과과 카이손 품비한주석의 생일 90돐에 즈음하여 기념집회를 가지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아시아정당들의 국제회의 제6차 총회에 참가할 조선로동당대표단 출발

캄보자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정당들의 국제회의 제6차총회에 참가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

제16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

중국의 광저우에서 진행되는 제16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정인철 체육성 부상을 당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선수단이 11월 30일 귀국 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이번 경기대회 사격, 격기, 배스볼 등의 경기에서 36개의 메달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20개)을 쟁취하였다.



제16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우리 선수들

온 나라를 들끓게 하는 《산울림》 열풍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시대의 기념비적명작으로 제창되여 전국각지에서 순회공연된 김일성상징적명작 경희극 《산울림》의 열풍이 온 나라를 혁명적대고조로 더욱 들끓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문화작품은 삶과 투쟁의 교과서이며 혁명화의 중요한 령식이다.》

경희극 《산울림》 공연을 관람한 전국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천리마시대 인간들처럼 현대의 포부와 리상을 가지고 살며 일할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높은 실적을 내고있다.

특히 각지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 리당비서들이 목표를 높이 세우고 파급하게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고있다.

온성군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김수철동무는 경희극의 주인공처럼 농장을 더 잘 꾸리려는 포부와 리상을 높이 세우고 파급하게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고있다.

온성군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김수철동무는 경희극의 주인공처럼 농장을 더 잘 꾸리려는 포부와 리상을 높이 세우고 파급하게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고있다.

중국, 몽골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출발

최태복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중화인민공화국과 몽골을 방문하기 위하여 11월 30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한편 대표단은 라오스와 웨남을 방문하게 된다.

비행장에서 리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주중, 캄보자, 라오스, 웨남의 외교대표들이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대표단 베이징 도착

최태복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11월 30일 베이징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민 일꾼들과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제16차 아시아경기대회에 갔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대표단 귀국

제16차 아시아경기대회에 갔던 우리 나라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박명철체육성 당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웨남을 방문하였던 우리 나라 정부방문 대표단 귀국

웨남을 방문하였던 리명산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방문 대표단이 11월 30일 귀국하였다.

승부가 나지 않는 경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매사업을 짜고들며 주민들속에 광범이는 농토산물과 여러가지 낚은 자재, 유류자재들을 동원리용하는 사업에 군중적응응으로, 정상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가 수매사업을 잘하고있는 평성시 승덕동 101인민반이 대단 취재기에 울랐을 때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외형성동무는 유류자재수매사업에서 101인민반이 동적으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는데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보면 알게 되겠지만 인민반원들의 수매경쟁의가 대단하다고 하는것이였다.

그의 말대로 101인민반의 1층 복도에 폭적하게 내붙인 수매경쟁도표가 우리를 맞이하였다.

뚝뚝 줄어들기 키를 솟군 경쟁도표를 한참이나 바라보던 우리는 좀 의아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인민반의 모든 세대도 중요도를 가지고 모양도 똑같았기였다.

(손가락도 길고 짧은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인민반내의 수매실적이 저렇듯 똑같을수

승부가 나지 않는 경쟁

있으리.)

이렇게 생각한 우리가 바쁜 일이 있어 도표들을 채 울리지 못한 모양이라고 하자 인민반장 문제월동무는 미소를 지었더니 그제야 말문을 열었다.

올해초에 열린 첫 인민반 모임에 문제월동무는 수매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였다. 생활에서 쓰고 나오는 여러가지 부산물과 유류자재들을 잘 리용하면 많은 인민소비를 생산할수 있다는것이 수매사업에 잘 참가하는것은 높은 애국적의 발현이라는데 대하여...

그러자 인민반원들은 유류자재를 동원리용하여 더욱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나래에 더 많은 보탬을 주고자 하면서 서로서로 경쟁을 심화하는것이였다.

그 열의속에 인민반수매경쟁도표가 나붙게 되었다.

인민반아파트 1층의 눈에 제일 잘 뜨이는 곳에 나붙은 경쟁도표는 인민반원들의 첫째가는 관심사로 되었다.

일요일 아침이면 예외 없이 수매물들을 가지고 수매소로 향하는 인민반원들의 열기면 모습이 보였다.

4층 2호실의 박동선로인은 제대관인 자가 모든 일

계획을 150%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10월부터 낮에는 자기 작업장에서 일

하고 밤에는 뒤떨어진 작업들을 도우며 농장적인 비단 끌어들이기들 제때에 끝낼수 있게 하였다.

라선시청년동맹에서는 시안의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에게 경희극주인공들처럼 높은 리상과 포부를 안고 강성대국건설의 보람찬 투쟁에 선군시대 청년들의 영예를 빛내 줄것을 호소하여 지난 8월에 는 청년들이 떨쳐나 하천을 정리하고 많은 량의 모래를 채취하여 시내도로를 보수할수 있게 하였다. 10월에는 시안의 수천명 청년들을 발동하여 유현동지구에 백화리지구 80여헥타의 산에 다음해 봄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을수 있게 독촉기를 하고 시안의 학교들에서는 1이상의 나무재를 수집하였다.

법동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회계부원 김은숙동무는 실패로 인에서 천리마시대 청년들처럼 뜻을 밝히지 않고있지 않았을 결의한 다음 경희극 《산울림》 주인공들의 원형이 태어난 유현동농장 농장으로 진출하였으며 각지에서 여러명의 청년들이 당에서 버는 어렵고 힘든 초소로 달려나가는 훌륭한 행동을 발휘하였다.

참으로 경희극 《산울림》은 많은 일꾼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속에서 커다란 감동을 일으켜 강성대국건설투쟁에 적극 고무하고있다.

본사기자 허 명 숙

필승불패의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

엄중한 단계에 이른 재침흥계

《선군정치는 평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단독으로 미국에 정면 대결하여 자주권을 지키고 사회주의를 고수할 수 있게 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그 아무리 횡포해도 선군으로 다져진 조선의 위력을 제대로 당해내지 못했었다.》

《김정일각하의 선군정치는 조선의 사회주의를 튼튼히 수호하고 최후승리를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김정일각하의 선군정치는 조선의 영인적의는 누리에 더욱 빛났었다.》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가 있기에 조선은 끝없이 부강번영하는 강국으로 필적이오 조선식사회주의는 영원히 승리하는 사회주의로 필적이다.》

시대의 이 물결에 명백한 해답을 찾은 기네의 한 인사의 제합담을 들어보라.

지금으로부터 10년전 4월 불멸의혁명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돏기념,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돏경축 로승적위대명령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중공 지국을 울리며 김일성광장을 힘차게 누비나가는 열병대오들, 광장을 막 대운 군중들이 꽃다발로 새긴 《김정일》, 《김정일》, 《결사옹위》, 《선군정치》의 글발들...

불안과 우려, 기대가 엇갈리는 착잡한 심정을 안고 우리나라 방문의 길에 올랐던 기네인사 모하메드 디우에 포파나에게 있어서 이날 눈앞에 펼쳐지는 희로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정도도 놀랐고 회한했었다.

고난을 겪고있는 조선은 큰 행사를 치를 형편이 못되며 조선에 가야 불만 한 것이 없을 것이라며 평양으로 향하는 자기의 발목을 지긋게 잡던 서방의 여인이 얼마나 외롭던 것이었는가를 깨우쳐 주었다.

(미칭)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과 거둬드는 자연재해...

하나 내가 이 나라의 곳곳에서 목격했건은 시름이나 탄식, 비애의 눈물이 아니라 광민의

웃음, 창조적 열정이 아닌가. 과연 무엇이 이 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든든한 배짱을 안겨주었는가. 조선이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좌절이 아니라 강성대국건설에로의 비약의 길을 택할 용단을 내릴 수 있는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명백한것은 그것이 미래에 대한 신념,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과 결부되어 있는것이다.

하더만 그 신념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이렇게 자문자답하며 깊은 사색의 세계를 어이가던 어느날 그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게 되었다.

눈물의 《아리랑》으로부터 《강성부흥아리랑》으로 이어진 조선의 건별사가 그대로 흡수되어있는 공연을 보고나니 심방과도 같은 것이 번쩍 하고 그의 뇌리를 쳤다.

《총대가 약해 망국노의 설움 안고 눈물의 《아리랑》을 부르면 이 나라 인민이 오늘날은 선군으로 총대가 든든해져서 세상이 보란듯이 《강성부흥아리랑》을 소리높이 부르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선군! 바로 이것이 있어 조선은 그토록 배심든듯의 웃으며 고난을 박차고 최후승리의 명마로 치달는것이다.》

이렇게 그는 우리 나라의 벽한 현실을 제합하고 위대한 진리를 찾게 되었다.

그는 《조선의 위대한 선군정치는 21세기의 필승의

보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어제서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은 조선이 세계가 보란듯이 판이 크게 승리의 잔치를 벌리는것을 보면서 도 아저씨 못하는가. 그것은 조선에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무적의 힘, 필승의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선군! 조선에서 창조된 새로운 정치 방식을 특징짓는 이 말은 오늘 세계에서 핵무기도 대비할수 없는 강위력한 힘을 상징하는 의미로 리해되고있다. 조선 평양에서 진행된 행사들과 조선인민의 웃음에서 바로 막강한 선군의 위력, 위대한 선군정치의 생활력을 엿보아 그 승리를 보았다. ...

선군정치는 조선을 영원히 강국으로 남이있게 할것이다.》

그렇다. 선군정치는 강위력한 힘이고 만능의 보급이며 필승의 가치이다.

약육강식의 생존방식으로 체질화된 횡포무도한 제국주의의 대결전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지키고 빛나는 승리의 역사를 창조하는 힘은 선군이다.

돌이켜보면 선군의 길에 조국의 운명도, 후손만대의 행복도 있다는 억척같은 신념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고난의 찬고비를 웃으며 넘어올수 있었다. 경제하는 강군담에서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 밑에 전진해왔기에 오늘 우리 나라는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세계의 상상봉우에 거연히 올라설수 있었었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정치의 강위력한 무기를 가지고있는것을 커다란 긍지로,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선군정치의 거대한 생활력에 관한 아프리카의 한 사회활동가는 치열한 반제투쟁을 동반하는 사회주의업업수행의 합법칙적과정을 깊이 통찰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장구한 조선혁명사가 판공되어온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교신을 계승하고 심화발전시키시으로써 역사의 새시대, 선군시대를 펼쳐놓으셨다고 사기의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 필승불패성은 복잡다단한 오늘의 정세하에서 혁명실현을 통하여 명백히 검증되었다. 이로서 선군정치는 대한 세계적인 지위와 공감을 그만큼 커지고있으며 선군정치를 따라배우려는 기운도 날로 높아지고있는것이다.

참으로 희세의 선군혁명 김정일장군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위대한 선군정치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조국은 온 세상에 그 위용을 높이 펼치고 있다.

세계가 한결같이 칭송하듯이 경제하는 강군담의 위대한 선군령도, 선군정치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위업, 세계자주화위업을 역사의 반동들의 악랄한 도전은 짓부셔 승리적전진을 이룩했었다.

본사기자 라명성

일본정부가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떠들며 조선반도 《유사시》에 《자위대》무력을 전장에 파견할수 있도록 《일미방위협력지침》을 수정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조선재침흥계가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1997년에 제정된 《일미방위협력지침》에는 일본주변사태 《자위대》무력이 미군의 활동을 후방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이것 자체가 전법적인 일본에 있어서 위법이다.

일본은 전후 법적으로 전후무력을 가질수 없었고 다른 나라를 반대하는 무력행사도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상권의 막연비호에 지난 수십년동안 그 무슨 《방위》의 피괴를 쓰고 야심적으로 군사적합을 키워왔으며 오늘날에는 자본주의세계에서 미국다움가는 방대한 전후무력을 가지게 되었다. 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거기에 실현하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우리 나라를 아시아제국의 첫번째 공격목표로 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으로 조선반도정세가 전쟁경으로 치달을 때때로 일본반동들이 불을 붙여 키는 격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는 것도 조선재침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은 모든 군사적움직임을 조선반도에 초점을 두고 벌이고있다.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본질에 있어서 채침타령이며 전쟁구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미국과의 《군사적협력》의 간판 밑에 상진의 전쟁마차에 올라 조선재침야망을 실현하려고 무모하게 날뛰고있다.

그러나 그들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힘이 약한때에 일제의 횡포한 총칼앞에서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견뎌왔던 그대의 인민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법적 못하는 무적필승의 혁명강군과 백범불굴의 정신력이 있다.

만약 일본반동들이 미제와 한적이 되어 한사교 2조조선전정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가슴속에 쌓이고있는 대일침략을 총폭발시켜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복수의 철수를 내릴것이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우리의 경고로 오만하지 말아야 한다.

서 남 일

위대한 선군명장을 높이 모시고 선군정치의 빛발아래 필승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될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동경과 찬탄의 목소리는 이처럼 세계방방곡곡에서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어떻게 되어 크지 않은 조선이 세계 《유일초대국》의 고상자세에 맞서 그처럼 승리적으로 전진하는가. 어떻게 되어 조선이 준엄한 시련을 헤쳐오면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할수 있게 되었는가.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결사의 항진이 벌어지는 오늘날의 시대에 과연 어떤 나라가 강국으로 되는가.

우려한 선군명장을 높이 모시고 선군정치의 빛발아래 필승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될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동경과 찬탄의 목소리는 이처럼 세계방방곡곡에서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어떻게 되어 크지 않은 조선이 세계 《유일초대국》의 고상자세에 맞서 그처럼 승리적으로 전진하는가. 어떻게 되어 조선이 준엄한 시련을 헤쳐오면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할수 있게 되었는가.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결사의 항진이 벌어지는 오늘날의 시대에 과연 어떤 나라가 강국으로 되는가.

우려한 선군명장을 높이 모시고 선군정치의 빛발아래 필승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될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동경과 찬탄의 목소리는 이처럼 세계방방곡곡에서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어떻게 되어 크지 않은 조선이 세계 《유일초대국》의 고상자세에 맞서 그처럼 승리적으로 전진하는가. 어떻게 되어 조선이 준엄한 시련을 헤쳐오면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할수 있게 되었는가.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결사의 항진이 벌어지는 오늘날의 시대에 과연 어떤 나라가 강국으로 되는가.

우려한 선군명장을 높이 모시고 선군정치의 빛발아래 필승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될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동경과 찬탄의 목소리는 이처럼 세계방방곡곡에서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어떻게 되어 크지 않은 조선이 세계 《유일초대국》의 고상자세에 맞서 그처럼 승리적으로 전진하는가. 어떻게 되어 조선이 준엄한 시련을 헤쳐오면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할수 있게 되었는가.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결사의 항진이 벌어지는 오늘날의 시대에 과연 어떤 나라가 강국으로 되는가.

우려한 선군명장을 높이 모시고 선군정치의 빛발아래 필승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될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동경과 찬탄의 목소리는 이처럼 세계방방곡곡에서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어떻게 되어 크지 않은 조선이 세계 《유일초대국》의 고상자세에 맞서 그처럼 승리적으로 전진하는가. 어떻게 되어 조선이 준엄한 시련을 헤쳐오면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할수 있게 되었는가.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결사의 항진이 벌어지는 오늘날의 시대에 과연 어떤 나라가 강국으로 되는가.

우려한 선군명장을 높이 모시고 선군정치의 빛발아래 필승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될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동경과 찬탄의 목소리는 이처럼 세계방방곡곡에서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어떻게 되어 크지 않은 조선이 세계 《유일초대국》의 고상자세에 맞서 그처럼 승리적으로 전진하는가. 어떻게 되어 조선이 준엄한 시련을 헤쳐오면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할수 있게 되었는가.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결사의 항진이 벌어지는 오늘날의 시대에 과연 어떤 나라가 강국으로 되는가.

우려한 선군명장을 높이 모시고 선군정치의 빛발아래 필승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될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동경과 찬탄의 목소리는 이처럼 세계방방곡곡에서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어떻게 되어 크지 않은 조선이 세계 《유일초대국》의 고상자세에 맞서 그처럼 승리적으로 전진하는가. 어떻게 되어 조선이 준엄한 시련을 헤쳐오면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할수 있게 되었는가.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결사의 항진이 벌어지는 오늘날의 시대에 과연 어떤 나라가 강국으로 되는가.

우려한 선군명장을 높이 모시고 선군정치의 빛발아래 필승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될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동경과 찬탄의 목소리는 이처럼 세계방방곡곡에서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어떻게 되어 크지 않은 조선이 세계 《유일초대국》의 고상자세에 맞서 그처럼 승리적으로 전진하는가. 어떻게 되어 조선이 준엄한 시련을 헤쳐오면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할수 있게 되었는가.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결사의 항진이 벌어지는 오늘날의 시대에 과연 어떤 나라가 강국으로 되는가.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이판과 아제트라이잔이 1월 17일 에베르기와 수송분야에서 호상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2건의 양해각서를 채택하였다.

같은 날 캄보자와 타이는 두 나라사이의 협조와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사중면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1월 19일 남미아태양에서 호상 협조제약에 합의하였다.

같은 날 에콰도르와 칠레는 군사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양해각서를 채택하였다.

국내총생산 잠성 메히코에서 올해 3, 4분기에

국내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 성장하였다. 특히 이 기간 농업과 립업부분에서 생산이 8.9% 증대되었다. 1월 22일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선박 건조 브라질에서 선박건조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나라이서는 현재 82척의 각종 선박이 건조중에 있으며 앞으로 150척을 또 건조할것을 계획하고있다. 1월 22일이 나라 대통령 이에 대해 밝혔다.

농산물수출 증대 예루에서 올해 들어 9월 까지 농산물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8% 증대되었다. 특히 커피, 사탕수수 등의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 1월 21일 이 나라 농업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일자리조성 계획 남아프리카에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는 앞으로 10년동안에 50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무 심기 인도네시아에서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지의 일환으로 최근 전국적인 나무심기운동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이 운동을 통해 1억그루의 나무를 심을것을 계획하고있다고 밝혔다. 나무심기에 수많은 각계층 주민들이 참가하고있다.

중국 통신

육류판료리전문식당 소개

1월 24일 중국의 신화통신이 육류판료리전문식당을 소개하였다.

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얼마전 조선의 수도 평양의 대동강변에 위치하고있는 육류판료리전문식당이 봉사를 시작하여 대단한 인기를 끌고있다.

료리전문식당은 새로 건설되어 육류판은 평양에서 제일 큰 음식점을 형성하고있다.

1960년 8월 13일에 준공된 육류판은 50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다.

육류판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대동강변에 자리잡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을뿐 아니라 청기와에 하얀 벽체, 날아갈듯 한 지붕을 엮은 민족적색의 건축물인것으로 하여 더욱 아름답다.

물론 제일 인기있는것은 유명한 평양김치이다.

육류판은 여러차례 개건되어 더욱더 현대적이미가 나고있다.

통신은 현대적으로 꾸러진 료리전문식당의 규모와 진귀한 컬렉션, 자라, 메추리료리들과 민족음식들, 세계명료리들을 비롯한 특색있는 봉사료리종류에 대하여, 식당의 료리사들이 료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는데 대하여 상세히 전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료리전문식당에서 봉사하고있는 각종 료리들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료리전문식당이 봉사를 시작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편의가 제공되게 되었다.

그는 《조선의 위대한 선군정치는 21세기의 필승의

정치적 단합 호소

메바는대통령 미셸 송베이만이 1월 21일 TV방송연설에서 나라에서 정치적단합을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메바는 아소프와 외국무력의 간섭야망을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면서 그는 그러자면 정치적단합과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정치세력들이 대화를 통하여 의견이를 해소하고 단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같은 날 캄보자와 타이는 두 나라사이의 협조와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사중면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1월 19일 남미아태양에서 호상 협조제약에 합의하였다.

같은 날 에콰도르와 칠레는 군사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양해각서를 채택하였다.

국내총생산 잠성 메히코에서 올해 3, 4분기에

서방의 모략책동 규탄

이판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드네자드가 1월 23일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의 그릇된 선전을 배격하였다.

최근 서방나라들이 나로의 유럽미사일방위체제설치계획이 나로의 군사적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서방의 또 하나의 오만으로 격언하여 그다. 그는 이판은 적들의 그 어떤 미사일방위체제도 두려워하지

팔레스티나해방장기 집행위원회 위원 아흐메드 마즈달라니가 1월 22일 이스라엘의 중동 평화회담을 규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회회가 팔란고 원과 동부루드으로부터의 이스라엘의 철수에 앞서 그와 관련한 주민투표를 진행할데 대한 법을 채택한것은 중동지역의 평화과정을 가로막으려는 또 하나의 교활한 술책이라고 폭로, 단죄하였다.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처사는 독립투구를 장악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에 또 하나의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본사기자

이스라엘의 그릇된 조치 단죄

한편 팔레스티나민중당국 수석협상자 사아브 에베카르가 1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그릇된 조치를 단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회회가 팔란고 원과 동부루드으로부터의 이스라엘의 철수에 앞서 그와 관련한 주민투표를 진행할데 대한 법을 채택한것은 중동지역의 평화과정을 가로막으려는 또 하나의 교활한 술책이라고 폭로, 단죄하였다.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처사는 독립투구를 장악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에 또 하나의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본사기자

용담필수 없는 살인파 폭압만행

결과 4명의 살인 주범이 살해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폭압만행을 계속 매어달리고있다.

1월 24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계곡에 있는 한 팔레스티나인 마을에 달려들어 살림집과 상점들을 파괴하고 집집승들을 죽이였으며 10여명의 주민들을 체포해 갔다.

이어 1월 25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투바시에서 쳐들어가 사원들과 파고있으며 가자지대의 여러 주민구역들에 자살격을 가하여 팔레스티나인들의 생명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아프가니스탄 항쟁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돌아치는 미군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과 나로군이 《반테러》의 간판 밑에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1월 21일 미군은 북부 와지리스탄지역 상공에 무기를 들이밀어 미사일공격을 가하였다. 결과 5명의 무고한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그 다음날에도 미군은 파키스탄의 북부와지리스탄지역 상공에 무기를 들이밀어 미사일공격을 가함으로써 5명의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였다.

한편 1월 26일 미군과 나로군은 북부 와지리스탄지역 상공에 무기와 무장적속들을 들이밀어 미사일공격과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노력

전력증산은 나라의 전반적인 생산장성과 발전은 물론 인민들의 생활수평의와도 관계되는 관건적문제이다.

세계적으로 현재 14억명의 인구가 전기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있는다는 사실은 전력문제해결의 절박성에 대하여 잘 말해주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전력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벌여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이판에서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해 언제든지 힘을 쏟고있다. 이 나라 정부는 현재 건설중이 있는 연계열이 완공되면 연 이만년도달에 가서 전국적으로 연계열 538개로 증대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판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5년까지의 제5차 5개년경제발전계획기간 전력생산을 제4차 5개년계획기간에 비해 45% 확장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방글라데시정부는 2개의 화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하게 하였다. 콜라지에서 일머서게 하여 발전소들의 발전능력은 총 132만kW에 달하게 된다.

네팔에서 소형수력발전소건설을 다그치고있다. 정부의 조지에 따라 각지 농촌층에서 600여개의 소형수력발전소건설공사를 진행하고있다. 나라이서는 2011년까지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약 2000개의 소형수력발전소가 일머서게 된다.

만마에서 전력증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21년동안 정부가 확력 수력발전소건설에 힘을 넣은 결과 전력생산능력이 현재 172만 6800kW 더 늘어났다.

잠비아에서 폭포지대들에 수력발전소들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에 따라 차부마 폭포, 카부마폭포, 카판보폭포 등 물원천이 풍부한 지대들에 각각 1만kW능력의 수력발전소들이 건설되게 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넓은 발전설비들을 교체하고 전력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전력공급망 복구공사도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

수단에서 일 할라발발전소가 건설되어 조일하였다. 발전소의 발전능력은 40만 5000kW에 달한다.

나라이서는 또한 닐강유역의 메로웨섬근처에 메로웨인제를 일머세웠다. 이 인제의 길이는 9.2km, 높이는 67m이다. 새로 건설된 인제는 부족되는 전력문제를 풀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관개수를 보다 넉넉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콩고에서 임보울투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시키고있다. 올해초 3만kW짜리 발전기가 설치되어 전력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이어 3기의 발전기를 더 늘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있다. 2003

년에 공사가 시작된 이 발전소의 발전능력은 12만kW에 달한다.

이와 함께 북부 상가지역에 수력발전소건설을 건설하기 위한 공사가 2011년 6월부터 시작되게 된다.

캐메룬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전력생산능력을 3배로 늘릴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이 목표가 실현되면 나라이서 전기사용지역이 현재의 46%로부터 75%로 확대된다.

우간다정부는 지난 5년동안 수력자원뿐아니라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적극 탐구이용하는 등 전력공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였다. 결과 현재 나라이의 전력생산능력은 59만 1000kW로 증대되었다.

강장한 전기문제를 풀기 위해 전력생산능력을 확대해나가는 발전도상나라들의 노력은 유망한 결실을 안아오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향의 시위, 과연

하먼서 임금착각과 세입인상을 비롯하여 당국이 실시하는 긴급조치로 당국자들의 생활이 명랑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한 항의격투를 벌이는 거리를 따라 행진

마비상태에 빠지는 등 혼란이 조성되었다.

— 보르두갈의 리스봉에서 11월 24일 적제개선을 위한 근로자들의 파업이 벌어졌다.

【조선중앙통신】